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아동·청소년의 원가족 복귀 지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멀어졌던 사이를 좁히도록 노력했다.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생활 환경을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제공하는 그룹홈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중 하나다. 그룹홈은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인원을 7인 이내로 정하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형제 자매가 많은 다둥이 가족이구나’라고 인식할 만큼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룹홈 내에서는 시설장과 보육사를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기도 하고 큰아빠, 큰엄마 등으로 호칭한다. 보통 가정과 같은 상황으로 꾸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심리적 안정감, 단계적 사회화 등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의 거주권, 행복추구권에 대해

그룹홈은 아동·청소년의 원가족 복귀에 대해 오래전부터 깊은 고민을 가졌다.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기에 그룹홈 모든 관계자는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룹홈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부모의 실직이나 빈곤 등 경제적인 문제부터 이혼이나 학대, 방임, 유기, 질병이나 장애 등 그 이유는 다르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공통의 상처를 안고 있죠. 그런데 다시 원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 역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문제가 현재 해결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현미 팀장은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영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했다. 성인이 돼 그룹홈에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나, 원가족으로의 복귀도 포기할 수 없

었다. 이러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바람은 지난 2019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시작될 수 있었다.

끊어진 관계를 잇고 단절된 마음을 어루만지다

그 첫 시작은 ‘원가족과의 관계맺기와 연락하기’였다. 부모에게 아이들의 성장 사진을 보내고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전하며 부모와 아이의 멀어졌던 사이를 좁히고자 했다. 또한 아이에게도 부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며 일상생활의 기본 기술과 올바른 습관들을 가르쳤다.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연락을 하는 건 기본이고 설과 추석, 가정의 달 5월 등에 원가족과의 만남을 추진했어요. 원가족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서서히 친해지게 한 거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수미 간사는 아무리 멀어 보여도 한 걸음씩 다가가면 닿을 수 있다고 느꼈다.

“원가족과 만났을 때 처음부터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경우도 있지만 서먹하고 어색한 경우도 많아요. 비누 만들기, 반지 만들기 같은 일일 체험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하고 원가족과의 여행 캠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원가족과의 만남 후에는 아이와 부모의 피드백을 통해 관계의 진전을 세심히 살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간극은 있었지만 때로는 그 간극이 무색할 만큼 아이와 부모는 급속히 가까워지기도 했다.

원가족 복귀, 가깝고도 먼 길

2019년 시작된 원가족 복귀 지원은 지난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 나갔다. 이진수(가명) 학생의 경우가 원만하게 원가족으로 복귀한 대표적 사례다.


“진수가 그룹홈에 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진수의 어머니는 원가족 복귀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수와 새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린 경우,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지만 자랄수록 아이도 자기정체성이 생기면서 원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독립을 원하는 경우도 많죠. 진수의 경우에도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원가족 복귀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면서 아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새아버지도 진수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지금 진수

는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데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집에서 지내요.”

원가족 복귀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이진수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주중과 주말의 생활을 분리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인 것이다.

김영민(가명) 학생의 경우는 입장이 달랐다. 원가족과의 만남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던 어머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었던 영민이의 상황을 간과했다. 반면에 그룹홈은 영민이의 상태를 잘 알기에 원가족에게 천천히 돌아가길 바랐다.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그룹홈 시설장에게 영민이를 키울 수 없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규정상 그룹홈을 퇴소한 후에는 다시 복귀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룹홈 시설장과 보육사가 밀착 관리하면서 아이와 어머니의 변화를 이끌어 냈어요. 다행히 영민이는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아이와 부모 외에도 그룹홈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그룹홈 관계자들과의 사례 공유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원가족 복귀 지원을 위한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를 사례집으로 펴냈고, 관계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룹홈을 퇴소하며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에도 앞장서며 합리적인 원가족 복귀 매뉴얼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글 김지영



원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여행 지원.